

# 2024년 TMTC훈련 과제 독후감2(C.S.루이스 순전한 기독교)

## 1.전체 요약

(1)옳고 그름,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

①인간 본성의 법칙, ▣ 자연법: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이 존재한다.

②몇가지 반론, “도덕이란 사실상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,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 온 것이 아닙니까?”, “도덕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?” \*\*참도덕은 진정한 옳음. 어떤 도덕관은 다른 것보다 진정한 옳음에 더 가깝다.

③이 법칙의 실재성-인간 본성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지 않는다.

그렇다면 왜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가?에 대한 질문에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못 된다. > 인간은 이기적 이면 안되니까의 참도덕의 결론에 항상 봉착함,인간의 본성의 법칙은 공상이 아닌 실재하는 것이다.

④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-유물론적 관점: 창조는 ‘우연’이다. 종교적 관점: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누군가 만들어 냈다. 우리 배후의 누군가의 존재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.

-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 있는 존재

-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.

즉,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,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타난다.

⑤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.-이 ‘누군가’에 대한 두 가지 증거,첫 번째 증거: 그가 만든 우주,두 번째 증거: 그가 우리 정신 안에 둔 도덕률 -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음. 그러나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절대 선이라면? 용서받을 수 없음.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끔찍한 곤경.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.

(2)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?

①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-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,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?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,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: ‘정의’와 ‘불의’의 개념 ≡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, 우리는 무엇에 비교하여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?

실제 전체의 무의미함을 증명하려다 보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전적으로 의미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음

②하나님의 침공-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. 악은 선의 결여일 뿐.

③충격적인 갈림길- 죄=자기중심성=자신을 앞세울 가능성=하나님이 되고 싶어할 가능성 → 사탄이 지은 죄,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, 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,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태도,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: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, 이 타락한 세상에 양심, 성경,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열어 주셨고 선택해야함.

④완전한 참회-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, 그 효력을 아는 것, → 완전한 순종, 완전한 고난, 완전한 죽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기에 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했던 일.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그의 순종, 고난,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

⑤실제적인 결론-새로운 종류의 생명,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실 하나님의 계획(세례, 믿음, 신비를 통해), 예수의 권위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생명, 하나님은 세상을 침고하실 것.거역할 수 없는 사랑과 공포로 뒤덮일 것.

(3)그리스도인의 행동

①도덕의 세 요소(도덕에 관해 생각할 때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생각해야함(인간과 인간의 관계, 인간 내부에 있는 것들,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과의 관계)

②기본덕목(분별력, 지성, 절제, 정의)

③사회도덕(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설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다. 황금률?유크한 세상?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 원하지도 않을 것.

④도덕과 정신분석, 성도덕, 그리스도인의 결혼, 용서, 가장 큰 죄, 사랑, 소망, 믿음에 관한 견해들

(4)인격을 넘어서,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.

①만드는 것과 낳는 것-신학은 지도와 같은 것, 자연을 통해 오는 생물학적 생명(바이오스)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, 자연 세계 전체를 만들어 낸 생명(조예)

②삼위이신 하나님-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는 것.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으로 일체이심.

③시간과 시간 너머- 시간에 매여있지 않으신 하나님

④좋은 전염-성부, 그 자신과 같은 성자는 성부의 자기 표현, 사랑의 관계이며 사랑의 영이신 성령은 삼위 일체,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 분께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됨, 그 생명을 나누어 갖게 되는것

⑤ 고집 센 장난감 병정들-그들을 살리기 위해 장난감 병정이 된그리스도

⑥두 가지 부연 설명-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면서 인류 전체가 하나의 단일체

⑦가장합시다-자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기 시작하신 그리스도, 자신과 같은 생각과 생명(조예)를 넣어주고 계신 것,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나는 일,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,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,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임.(우리의 죄성 자체에 주목,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, 사람이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심)

⑧기독교는 쉬운가? 어려울까?-“너희도 온전하라”, 정말 온전히치료받은 마음을 먹을 것,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함. 오직 이 일을 위해 창조됨)

⑨ 댓가를 계산하기-결코 온전해질 희망은 없음.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순간 오직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심. 그 계획에 승복, 순종할 것.

⑩ 호감 주는 사람이나, 새 사람이나-그가 온전하심 같이 사랑, 지혜, 기쁨, 아름다움, 불멸성에서 온전해질 것. 진정한 회심은 그 열매로 나타날 것. 기절이나 타고난 것으로 자랑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 그분께 다시 바칠 때,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됨볼새, 혐오, 가난, 길 잃은 양 같은 가난한 피조물이 될 수 있음.

⑪ 새 사람-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변화, 자기 자신에서 벗어날수록, 그분께 자신을 드릴수록, 진정으로 자기 다워짐.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함. 자신을 포기하고 자식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온 마음,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 것. 그리스도를 찾으면 만나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임.

## 2. 소감

책 초반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웠고 지금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다. 다만 옳고 그름을 아는 인간 내면의 본성,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가 된 것이며 인간 내면의 불안은 비교와 경쟁에서 비롯된 점이 공감이 되었다.

하나님의 침공이라는 표현이 확 눈에 띄었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단어 속에서 느껴진다.

삼위일체를 이해하는 3차원의 해석이 참 좋았고 새롭게 깨닫게 되었으며,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,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가장하고 온전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더 철저히 온 마음, 온 몸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고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소망과 기대가 마지막 소감이었다.